

## 「문전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양상과 의미

박재인\*

**요약:**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고전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사무가 「문전본풀이」를 소재로 한 현대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였다. 웹툰 『신과 함께』와 동화 『녹디생이,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는 성공적 스토리텔링 방식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원작의 기본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위성사건들을 덧붙이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원작의 주요 캐릭터만 활용하며 파격적인 서사 변용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런데 텍스트의 형상과 달리 그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전자에서는 현대인의 감수성과 의식세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원작의 신화적 의미를 깊이 반영하고 있었다. 즉 두 작품 모두 원작과의 견고한 연결망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접근으로 고전의 전통의식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스토리텔링 전략은 고전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 창작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서사무가 「문전본풀이」, 웹툰 『신과 함께』, 동화 『녹디생이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 고전 소재 콘텐츠, 고전의 재창작 방법

### An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Case of Classics *Munjeonbonp'uli* as Modern Contents

Jaiin Park

**Abstract:** The research is discussed by analyzing the content of contemporary storytelling approach to classical literary material. Webtoon *Along with the Gods* and fairy tale *The missing toilet* are successful cases. The first method is to add small events while reflecting the original storyline. The second radically changes the story of the original. In the former case, the text resembles the original, but its meaning reflects much of the sensitivity and consciousness of modern people. In the latter case, the tex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but the mythological meaning was adhered to. Therefore, both works were taking a storytelling strategy that coexisted the traditional and modern sense of the classics. This can be a content creation methodology that further enriches the value of classical literary material.

**Key Words:** Shaman Song *Munjeonbonp'uli*, Webtoon *Along with the Gods*, Fairy tale *The missing toilet*, Classical Content, Storytelling Methods in Classics

□ 접수일: 2019년 11월 15일, 수정일: 2019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0일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Professor, Konkuk Univ., Email: bettyblue82@hanmail.net)

## I. 서론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전(古典)’의 현대적 가치가 부상하였다. 콘텐츠 개발자들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고전 속에서 많은 소재들을 채택하여 성공을 꾀하고, 대중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상에서 고전의 의미가 어떻게 고수되고 변용되었는가를 탐색하며 콘텐츠 감상을 즐긴다. 이렇게 콘텐츠는 현대사회에서 고전의 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현대 콘텐츠 속에 고전이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여 그 성공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문전본풀이』는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웹툰 『신과 함께』와 동화 『늑대소년,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가 대표적이며, 이 작품들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현대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도의 서사무가가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잠재되어 있던 수용 가치를 확인한 성공적인 고전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두 작품은 우리가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원작의 기본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위성사건들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원작에서 파격적인 서사 변용을 이루면서도 원작의 특정 지점을 고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재현방식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의 감수성과 사유체계를 반영하면서도 고전의 가치를 전승하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1) 제주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 「문전본풀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문제를 다루며, 제주무가 특유의 신화적 가치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전본풀이」의 서사적 중요성을 인정해왔다. 이 이야기에서 다루는 가정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논의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가정신화(家庭神話)”라고 규정한 논의를 시작으로(서대석, 1988), 가정의 책임과 욕망의 중재 문제라고 분석한 주장도 발표되었다(성정희, 2010). 그리고 이 작품의 신화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대체로 자연적 순환원리 및 불과 물, 자연과 문명 등 양 극단의 가치들이 충돌하였다가 조정과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한 해석이었다(이수자, 1989; 권복순, 2009; 조현철, 2011; 김난주, 2003; 김재용, 2004; 박재인, 2015). 「문전본풀이」를 다룬 콘텐츠 역시 가정신화로서의 특장과 함께, 충돌에서 재조정이라는 신화적 원리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2) 그간 서사무가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신화적 세계관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미 발표되었으나(황인순, 2015; 정재호, 2017), 「문전본풀이」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웹툰의 저승·이승편을 중심으로 리메이크되었기 때문에 원작 신화편의 스토리는 포함되지 않아서 그 분석에도 「문전본풀이」는 포함되지 않았고, 웹툰과 동화에 대한 분석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사무가가 현대 콘텐츠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문데 반하여, 아직까지 「문전본풀

## II. 원작에 충실한 재현과 현대적 의미 확장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재현을 보여준 콘텐츠는 웹툰 『신과 함께』이다. 이 작품은 주호민 작가가 2010년 1월 8일~2012년 8월 29일까지 네이버만화에서 공식 연재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신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웹툰 중 신화편 「녹두생이전」이 서사무가 「문전본풀이」를 재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원작의 스토리를 따르고 있다. ‘(1) 가난으로 시작된 가족의 해체, (2) 악첩의 개입으로 와 해된 부부관계와 전처의 죽음, (3) 악첩의 침입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첩의 계략, (4) 전처 자식들의 승리, (5) 죽었던 양처의 회생과 각 인물들의 신 좌정’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전본풀이」의 기본줄거리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서도 몇몇의 위성사건들을 덧붙여 신화적 인물들의 형상을 특별하게 구현하고 작품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그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남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변형되어 있다. 원작에서 남선비는 악첩의 정체가 드러나는 즉시 정주목에 걸려 죽고, 정주목신이나 올레 동티가 된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 웹툰에서는 남선비는 아들들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죽지 않으며, 아무런 신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서사적 변용이 이뤄지면서 남선비라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도 특별해지는데, 그것에는 비판과 연민이 공존한다.

우선 웹툰에서는 남선비의 무능력함과 나태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 남선비가 또다시 혼자가 될까 두려워 노일저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장면과 노일저대의 악행이 모두 발각되었는데도 여전히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위성사건으로 덧붙여져 그의 의존성과 몽매함이 부각된다.<sup>3)</sup>

그러면서도 남선비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는 위성사건도 함께 등장한다. 가령, 녹두생이가

이」 콘텐츠에 대한 학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웹툰 1화에서 남선비가 등장하는데, 그 소개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모태 한량인지라 집에 빈둥빈둥 놓고 있거든. 그런데 특정분야에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해 자식을 일곱이나 두었다지. 게다가 전부 아들! 게다가 전부 연년생! 어휴 징그러”(1화)라며 무능력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남선비의 인물됨을 비판한다. 또 노일저대가 막내아들의 간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자, “남선비는 진심으로 필사적이었다. 눈 먼 마당에 홀아비가 지 돼버리면 인생 막막하거든.”(5화)라고 하여, 남선비가 홀아비로 살고 싶지 않아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남선비는 노일저대의 악행이 모두 발각되었는데도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들들이 사실을 고하자, 남선비는 “이놈 자식들이 뭐라는거야?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 사람인데 그깟 주막 계집에게 속았다고 하는 게니?”(9화)라며 자신의 실책을 부정한다. 이 장면은 많은 독자들의 비판을 받은 장면이기도 하다.

지혜를 발휘할 때 예전에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책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위성사건을 통해 인물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난다. 또한 노일저대가 죽을 때 남선비와 함께 죽으려하지만 아들들이 남선비를 대피시켜 그의 목숨이 보전된다. 비록 마지막화에서 모두 가택신으로 좌정하고 남선비만 혼자 남게 된 장면이 그려지지만, 남선비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결말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선비에 대한 연민 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의 말미에 홀로 남게 되어 어리둥절한 남선비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깃눔, 알게 뭐야?”라며 작가의 논평을 덧붙였다. 남선비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처벌을 유보하는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적인 평가는 원작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서사무가는 그 장르적 특성상 여러 심방들에 의해 구비전승되는 현장에서 매번 특별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각편들은 기본줄거리를 공유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들은 작품에 담긴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 「문전본풀이」의 각편들 역시 ‘남선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웹툰의 인물 형상화 방식과 일치한다.

먼저 「문전본풀이」의 각편들에서는 대체로 남선비를 연민하는 시선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 신명옥본과 박남하본, 양창보본, 고순안본에는 남선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신명옥본에서는 “남선비 아들 일곱성제는 아방을 잘 감장하고”(진성기, 1991: 120)라고 하고, 고순안본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된 헤여도, 나 부모로구나, 감장헤여 두언”(제주대, 2013: 341)이라고 한다. 이 두 자료에서는 자식들을 죽이려 했음에도 자신들의 아버지이기에 장례를 치러주어 자식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박남하본에서는 “일곱성제가 모다스고, ‘설룬 아방 미신 죄가 시라! 거리 동티로나 들어삼서.’”(진성기, 1991: 129)라고 하고, 양창보본에서는 “아바님이야 숫아방(성품이 어질고 우직한 아버지) 무슨 쥬가 시리오(있으리오).”(제주대, 2010: 281)라고 하였다. 이 두 각편에서는 남선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남선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긴 각편은 1960년에 채록된 이춘아의 무가이다. 이춘아본에서는 가산을 탕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노일저대보다 남선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남선비의 죽음을 처참하게 그려내며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대문공쟁이(마루대문의 못)에 눈이 걸려 우두갱이 스고”(진성기, 1991: 111)라며, 남선비의 처참한 죽음을 묘사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여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남선비의 눈이 못에 박혀 죽는 것으로 그려낸 것이다. 대다수의 각편에서는 남선비가 정주목에 걸려 죽지만, 여기에서는 진가(眞假)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그 ‘눈’에 비극성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작에서도 남선비 인물에 대한 형상화 방식은 비판과 연민의 시선이 공존했다. 아무래도 연민의 시선은 천륜을 저버릴 수 없고, 무능력하고 폐를 끼치는 가족구성원일지라도 감싸 안으려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사유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작의 더 많은 각편에서 연민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무능력한 가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식은 비교적 현대적인 관점이다. 특히 남선비에 대한 평가는 무능력하고 대책 없는 가부장에 대한 평가이자, 무조건적으로 가부장이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선비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은 일부의 서사무가 자료와 현대의 콘텐츠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어떠한가. 대다수의 서사무가 각편이 그러했듯이 천륜과 도덕만을 강조하는 서사는 대중적 호응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 웹툰에서 ‘남선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면서도 뜨거웠다. 남선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은 대중에게 또 다른 가부장제의 폭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천륜이기에, 이 웹툰은 남선비의 비극적 죽음을 막아내는 결말로 그 양가적인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웹툰은 비난과 연민이 공존하는 재현 방식으로, 악한 가족구성원도 품어내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가부장제에 대한 현대적 비판의식을 함께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지점은 녹두생이<sup>4)</sup>에 대한 것이다. 웹툰 『신과 함께』에서 가장 많은 변용이 이뤄진 부분은 바로 주인공 녹두생이가 가정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특히 엄마를 되살리는 부분은 원작에 없던 서사가 추가되면서, 더욱 확장된 의미로 구현되었다.

녹두생이가 죽은 여산부인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에서 녹두생이의 극단적인 희생이 제시된다. 녹두생이는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오천강 물을 마르게 하려고, 천상의 새 두루미에게 천상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두루미 등에 타고 천상으로 가는 길에, 녹두생이는 두루미 날개짓의 에너지원인 잉어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만다. 이때 녹두생이는 자기 팔을 잘라 두루미에게 먹이고, 그저 천상에 도착하기만을 바란다. 천상에 도착하여 두루미가 녹두생이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천지궁에는 아니 눈물 흘리는 자가 없었다며, 이 작품에서는 그 희생에 대한 다수의 감동과 슬픔을 표현한다. 그리고 녹두생이의 지극한 효성은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된다.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녹두생이의 팔을 재생시켜주었고,

4) 이 글에서 각 캐릭터의 이름의 경우, 제주무가를 설명할 때에는 안산인본의 이름으로 통칭하고, 콘텐츠를 설명할 때에는 콘텐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꽃들을 주었다. 즉 녹두생이의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켜 훼손된 신체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재생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는 원작과는 다른 형상이지만, 그 의미면에서는 상통하기도 한다. 「문전본풀이」 각편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대다수의 자료들이 녹두생인의 지혜와 주도성을 강조하며 그 신성을 드러낸다면, 몇몇의 자료들은 칠형제의 슬픔을 강조하여 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슴애기, 다슴어명” 등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등장한다던가, “비새같이 울고” 구절이 반복하는 경우가 그러하다.<sup>5)</sup>

자식들의 슬픔은 비교적 채록본들에 강조되어 있는 편인데, 고순안본에서 그것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아버지가 일곱 형제의 애를 나기 위해 칼을 갈자, 일곱 형제는 두려워하면서 통곡하며 서글픈 노래를 부른다.<sup>6)</sup>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애절한 노랫가락은 유독 고순안본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 각편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태의 근원,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한스러워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고순안본을 채록한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심방 개인의 감정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청중들도 무당의 힘겨운 생애에 공감을 표했다고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하였다(제주대, 2013: 337-338).

이처럼 후대의 채록본들에서 자식들의 고통이 강조된 특징이 있다. 가정 문제에 있어 자녀들에 대한 역할 기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고, 가정에 대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무조건적 지지와 희생을 강요하는 과거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풀이 역시 자녀들의 고통과 슬픔에 더욱 공감하는 쪽으로 변형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현대의 콘텐츠에서도 더욱 자녀들의 고통이 강조된 것이다.

5) 고대중본(1962년 채록본)의 경우가 그러하다. 녹두생인이 노닐저대의 악행을 밝혀내며 “요 동넷 어른덜 다슴애기 다슴부모 있는 어분들, / 날 보아근 정다슴서(조심하시오).”(장주근, 2001: 200)라고 외친다. 이 대사는 안산인본, 이용옥본, 양창보본에서도 등장한다. 인자한 어머니로 위장한 악인에 대한 폭로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며, ‘나를 보아서라도 조심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식들의 고통을 강조한다. 그리고 박남하본에서 “일곱성젠 비새같이 울어간다”(진성기, 1991: 123)며 그 슬픔을 강조하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는 이용옥본에서도 등장하는데, 일곱아들들이 부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비새ㄱ찌 울”고, 가짜 어머니에게 “어떻허난 얼굴이 뜨나지었수까? (달라졌습니까)”(제주대, 2009: 408)라고 한다. 가짜 어머니를 보자마자 여산부인이 아닌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슬프게 우는 형제들을 묘사한 것이다.

6) “(창초가 서창하게 바뀐다.)그때에, 아기덜, 일곱 성제~ / 날 낳던 나 어명, 어덜 갑데가~. / 설운~ 어머니, 우리덜, 나그네, 고생 고생허명, 진 자리 뭉든 자리~ / 동냥질허명~ 우리덜, 공양(供養)허고, 머리 고뻑, 네웁고, 설운 어명, 어덜, 우리덜~ 놓아두언, 어덜 갑데가에~ / 날 낳던, 나 어머니, 아까운 어머니, 오뉴월 영청 한더위~ / 가망헌, 눈정미, 히영헌, 냇바디에~ / 비세ㄱ찌, 아기덜 일곱 성제, 통곡도 허명 울곡, 발변음도 치명 울곡, 이거 우리 그만 허난, 다 살 아지었구넌 허명, 이세ㄱ찌 우웁네다에-(제주대, 2013: 32).”

웹툰에서 녹두생이의 희생은 부모 대신 자식들이 주도하는 가정의 속사정을 반영한다. 이는 가정문제에서 부모가 나약할 때 자식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이며, 그것은 심리학과 아동학에서 주장하는 자녀의 부모화(parentification)<sup>7)</sup> 경험에 대한 우려와 일치한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는 자녀들의 고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웹툰의 서사 변용은 원작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자녀의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획기적인 서사적 변용 속에 고수되는 신화적 가치

「문전본풀이」에서 비교적 많은 서사적 변용을 이룬 콘텐츠는 김원석 작가의 『녹두생이,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이다. 2016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독특한 인물 설정과 톡톡 튀는 서사 전개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 동화에서는 원작의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녹두생이와 현대인 고서현, 그리고 심술 맞은 측간신 클리너가 주인공이고, 조왕신 조킹은 잠깐 등장하며 나머지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즉 이 동화에서 원작은 조킹과 클리너 그리고 녹두생이의 존재적 특성을 설명하는 전사(前事)로 기능할 뿐이다.

그래서 콘텐츠의 서사는 많은 부분 새롭다. 이야기는 어느 날 조왕아파트에 모든 변기가 사라지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는 조킹을 질투하던 클리너의 심술로 벌어진 일인데, 본풀이 주인공 녹두생이는 현실세계로 와서 고서현이라는 여자아이와 합심하여 이 사태를 해결한다. 녹두생이는 고서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고서현을 돕는다. 그리고 고서현은 녹두생이와 정신적으로 교감하며, 귀신 세상으로 입성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해달’로 변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처럼 동화의 서사는 원작에서 많이 변용된 형태이다.

그럼에도 이 동화는 「문전본풀이」의 신화적 시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측간에 대한 관점이 그러하다.

“부어라 먹어라 하며 제 배 속에 똥을 가득 만들어 놓고서 화장실에 와서는 더럽다며 찌그리고, 피하고, 없애 버리기에 급급한 인간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클리너는 치를 떨었다. …

7)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 전이 상태(조은영, 2004)를 자녀의 부모화라고 부르는데, 부모화 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측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싶었다(김원석, 2016: 81-83).”

조왕아파트에 번기가 사라지는 사건은 클리너(측간신)의 질투로 벌어진 일이었다. 클리너는 현대인들이 부엌만을 중히 여기고 화장실은 더러워하며 기피하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고 심술을 부린 것이다. 그러면서 작품에서는 ‘먹는 것’ 못지않게 ‘싸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었던 것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모두 중요하단다.”(김원석, 2016: 112)라며, 측간이 생리본능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먹고 싸는 몸 전체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순환과 소통의 의미를 전한다.

이는 원작에서도 강조된 신화적 세계관이다. 격하게 대립했던 여산부인과 노일저대가 조왕신과 측간신으로서 한 가정에 각자의 위상으로 좌정하는 장면에는 ‘순환과 소통’의 이치가 담겨있다. 한중일의 조왕신과 측간신 내력담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그 신의 속성을 인간 욕망의 양면성으로 보고, 조왕신을 가정 내 허용된 욕망, 측간신을 가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욕망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신성의 충돌과 관계 재정립 과정을 가정 내 욕망과 책임의 조정 원리로 해석하였다(박재인, 2015).

이 관점을 적용하면, 조왕신 신직은 가정 안의 욕망, 이를 테면 생산과 확장의 에로스가 보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사회 속에서 사(死)에서 생(生)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상징하며, 문명 안에서 위축되거나 망각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성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의미한다. 반면 측간신은 가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욕망으로 조왕신과 반대 방향의 힘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사회 속에 생(生)에서 사(死)의 방향으로 흐르는 에너지로, 문명과 조율하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면서 자연으로 복원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왕신과 측간신은 가정 내 양방향의 에너지 흐름을 상징하며, 순환과 소통을 위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작에서 그려낸 악(惡)에 대한 인식과 그 원수풀이의 의미 또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는 노일저대의 죽음과 원수풀이를 상세하게 풀어내어 ‘처벌의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선과 악의 기준가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향한다. 노일저대의 신체가 여러 생물들로 환생되는 장면에서는 그녀가 새로운 생명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악인이 악(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악이 해체의 과정을 거쳐 미래적 선의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는 ‘승화’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였을 때 측간신의 신성은 가정 밖으로 밀려난 욕망을 해체하고 승화하는 것이며, 측간에 대한 신화적 의미는 가치 전환의 큰 힘을 발휘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sup>8)</sup> 이는 우리의 내면에 얽힌 번민을 달래주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욕망과 관련된 편견을 덜어 주는 신화의 치유적 역할에 해당하는데(신동훈, 2010), 동화는 바로 이러한 측간의 가치에 대해 재확인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동화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화적 세계관을 대입시킨다. 주인공 서현이가 특별한 존재 ‘해달’이 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신화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것이다.

“서현이는 퇴원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즉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녹디생이를 만나러 나섰다. 물품 보관함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상한 바람에 휩쓸리고 말았다. 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온 사나이는 서현이를 어깨에 둘러메고 동굴 깊은 데까지 왔다. 서현이는 동굴을 지나가는 사이 이전의 모습을 벗고 ‘해달’로 새롭게 변해갔다(김원석, 2016: 69).”

녹디생이의 도움으로 귀신 세상으로 입성한 서현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해달’로 변신한다. 여기에서 해달의 역할은 녹디생이와 교감하면서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의 존재 서현이가 ‘해달’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현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입성하면서 해달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과정을 단군신화를 예로 들어 동굴을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변신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김원석, 2016: 68)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서현이는 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의 존재를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는 ‘해달’로 새롭게 변화한다. 이는 존재적 변화이며, 서현이는 그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은 세상의 힘’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현이는 세상의 기존 가치 너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이 동화는 서사무가 작품 속 주인공 녹디생이와 고서현이라는 현대인의 교감 과정을 중시한다. 특히 서현이는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서

8) 이는 인간의 배설물을 농작이나 목축에 활용하였던 제주도의 측간 문화에 부합한다. 그래서 「문전본풀이」의 서사를 자연의 리사이클 원리라고 주장한 논의도 있었다(이수자, 1989). ‘측간의 기능’에 대한 제주 문화는 혐오와 거부의 존재가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재탄생하는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가치의 환원이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과 악이 악만은 아니라는 철학 등 그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를 통해 녹디생이와 계속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낸다. 녹디생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나는 네 몸을 빌리고, 너는 내 마음을 빌리는 거야.”(김원석, 2016: 37)라고 규정한다. 이는 「문전본풀이」에 담긴 녹디생이의 힘, 즉 신화적 가치가 현실 속 서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형상화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이 외면한 양처(조왕신)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나, 악인에 대한 처벌의식에 그치지 않고 그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원수풀이 장면 등이 바로 그러한 신화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또한 「문전본풀이」에 담긴 신화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동화는 텍스트 상에서는 파격적인 현대적 변용을 이루고 있지만,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원작의 신화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 IV. 결론

서사무가 중에서도 「문전본풀이」는 가장 활발하게 콘텐츠로 재창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텍스트 이면에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신성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콘텐츠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 이 작품을 재창작한 콘텐츠들 역시 그 리얼리즘과 신성성을 다각적으로 접근한 경우인데, 이 연구는 그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웹툰 『신과 함께』와 동화 『녹디생이,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는 고전을 재창작하는 두 가지 전략을 보여주었다. 웹툰은 원작의 기본 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위성사건들을 덧붙여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의미로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원작의 스토리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애를 보여주고, 변용된 지점에서는 현대인들의 감수성과 다양한 의식세계를 담아내었던 것이다. 텍스트의 작은 변화와 의미론적인 큰 변화를 추구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동화는 파격적인 서사 변용을 이루면서도, 원작에 담긴 신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전승하는 형태였다. 텍스트 상에는 원작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클리너(즉 간신)와 고서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문전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욕망에 대한 편견을 덜어주는 힘’이자, ‘기존가치를 전복하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텍스트의 많은 변화와 의미론적인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인 것이다.

「문전본풀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 전략은 곧 원작에 충실한 재현에서는 현대인의 감수성과 의식세계를 반영하여 원작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고, 파격적으로 서사 변용을 이룬 방식에서는 오히려 원작의 전통적 가치가 고수될 수 있다는 점이였다. 두 방식 모두 원작과의 견고한 연결망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텍스트와 의미 구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고전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었다는 것이 그 전략적 특징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고전의 재창작 방법론을 구안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콘텐츠를 분석한 논의로,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고전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 창작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복순(2009), “문전본풀이의 대립적 인물성격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3: 153-176.
- 김난주(2003),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석(2016), 『늑디생이,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 서울: 머스트비.
- 김재용(2004),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2: 73-98.
- 박재인(2015), “한중일 조왕서사를 통해 본 가정 내 책임과 욕망의 조정 원리와 그 문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대석(1988), “〈칠성풀이〉의 연구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65: 81-110.
- 성정희(2010),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45, 65-85.
- 신동훈(2010),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비교민속학』, 43: 349-377.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 정제호(2017), “서사무가의 콘텐츠 활용 유형과 스토리텔링 양상”, 『일본학연구』, 52: 113-136.
- 제주제 한국학협동과정(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경기: 보고서.
-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경기: 보고서.
-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2013),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조은영(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설(2011),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36: 85-119.
- 주호민(2017), 『신과 함께』, 서울: 애니북스.
- 진성기(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서울: 민속원.
- 황인순(2015),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 『서강인문논총』, 44: 353-384.